



히사유키 스즈키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상임이사

“DSC시장의 CCD 독주 끝내겠다”

글 양기석 기자

메 모리 및 이미지 센서 솔루션 공급 업체인 한국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지난달 5일 ‘5 메가 픽셀 CMOS 이미지 센서’와 ‘3.1 메가 픽셀 CMOS 이미지 센서’를 각각 출시했다.

이날 신제품 홍보 차 내한한 히사유키 스즈

키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상임이사는 “이번 신제품 출시로 이미지 캡처 애플리케이션에 고화질의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”며 “특히 새롭게 출시된 고해상도 CMOS 이미지 센서는 노이즈를 최소화하고 감도를 높여주는 마이크론의 디지털 클라리티(Digital Clarity)

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돼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기의 배터리 수명까지 연장하는 것이 특징”이라고 말했다.

이번에 출시된 신제품군은 주요 전자동 디지털 스틸 카메라(DSC) 제조업체들에게 기존 제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CMOS 이미징 기술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. 또한 이 센서들은 칩 카운트 감소, 보드 레이아웃의 간소화, 전체 해상도 모드 상에서 향상된 프레임 레이트, 그리고 CCD와 비교할 때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는 것도 장점이다.

마이크론은 ‘5 메가 픽셀 센서’를 DSC나 카메라 폰 용으로 공급하고, ‘3.1 메가 픽셀 센서’는 카메라 폰 용으로 납품할 예정이다.

스즈키 상임이사는 “마이크론의 새로운 5 메가 픽셀과 3.1 메가 픽셀 이미지 센서는 CMOS 이미지를 한층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”이라며 “더욱이 새로 출시된 센서들의 이미지 화질이나 해상도는 전자동 DSC 시장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CCD 기술을 대체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.

이미 CMOS 이미징 기술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폰 제조업체들과는 달리 CMOS 기술 도입이 미미한 DSC 제조업체들을 타깃으로 적극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는 것이 스즈키 상임이사의 설명이다.

그는 “소비자가 중요한 순간을 캡처할 수 있는 질 높은 카메라를 제공하는 것이 휴대폰 제조업체들의 핵심 판매 전략”이라며, “마이크론의 센서가 장착된 카메라 폰을 이용해 사용자들은 평생 간직할 수 있는 고품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그는 또 “이미 한국 소비자들은 휴대전화에서 고품질의 사진을 프린팅하거나 별도로 저장하기를 원하고 있다”며 “이번 신제품은 어떤 조건 하에서도 고품질의 화질을 제공해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
현재 3.1 메가 픽셀 이미지 센서의 경우 샘플이 제공되고 있는 가운데 올 4분기부터는 대량 생산될 예정이며, 5 메가 픽셀 이미지 센서의 샘플은 11월경부터 제공되고 2006년 1분기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이뤄질 예정이다. ●